

#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 시·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소통협력공간 1호점 개관 2주년 기념식 개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통협력공간 1호점 '성평등전주'가 개관 두 돌을 맞았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커뮤니티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성평등전주 오수연 팀장의 사회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축사, 이강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장의 격려사, 비영리환경단체 프리데코 모이름드리 대표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성평등전주 활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에 소통협력공간 1호점인 성평등전주가 만들어졌던 과정, 성평등전주로 인한 선미촌의 변화 등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개관 2주년을 기념해 '성평등전주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도 열렸다. 컨퍼런스는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과 신민자 서울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팀장, 도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성평등전주 커뮤니티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정 바스라 민주시민교육센터 대표, 이하은 성평등전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성평등전주의 활동 평가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관련 성평등전주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조성됐다. 지난 2년간 성평등전주에서는 △선미촌 리빙랩 사업 △페미니즘 예술제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성평등 생활연구 등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면서 선미촌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선희 성평등전주 소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공간이 성평등 활동의 플랫폼으로 변화한 것은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서 감동과 의미가 크다"면서 "성평등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 상상과 도전을 통해 전주가 성평등한 지역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75세 이상 생활실태·건강상태 전수조사

전주시가 체계적이고 촘촘한 노인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5세 이상 노인(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4만7340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주시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각각의 돌봄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선정

기준표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마무리된다.

1차 조사에는 35개 동 1299명의 통장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해 △독거 등 실거주 현황 △노쇠(질병 개수) △우울·인지장애 등 생활실태와 기본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조사를 펼치게 된다. 시는 1차 조사에 따른 자료 입력 과정과 조사결과 분석 및 대상자 선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2차 조사에 돌

입할 방침이다.

2차 조사는 돌봄필요군으로 선별된 대상자에 한해 실시되는데,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으로 꾸러지는 시니어 실문조사 전문사업단이 조사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대상가구에 방문해 의료적 문제(만성질환, 인지, 정신건강 등)와 돌봄 문제(일상생활 수행, 주거환경 등) 등에 대한 심화조사를 한다.

향후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돌봄필요도에 따라 각종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방안을 발굴하는 등 향후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시사회복지협, '좋은 이웃들' 사업 성과보고회

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내 봉사자들로 꾸러진 '좋은 이웃들'이 240여 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외계층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

장 김정석)는 지난 3일 전주시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협의회 임원과 소외계층 발굴 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좋은 이웃들'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좋은 이웃들'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지킴이'를 모토로 삼아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해주는 봉사단으로, 통장과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원, 미용사협회 등 203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봉사자들은 지난 1년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김윤상 기자

## '주한외국공관장 초청간담회' 서 전주 홍보

### 세계문화주간·비빔밥축제 등 소개 관광거점도시 전주 마케팅 추진

전주시는 지난 3일 서울 하얏트호텔 남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홍보했다.



시는 주한외국공관 대사와 시도국제관계대사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외교사절단에 지난 2016년부터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주한대사관 및 문화원과 추진해 국제교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전주 세계문화주간'과 함께 맛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 비빔밥축제' 등을 소개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설명하며 추후 각 대사관들이 전주 홍보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 주요 주한공관장과 자매(우호)도시 관계자를 초청하고 싱가포르, 중국 쑤저우와는 교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업무협약(MOU) 체결에 나서는 등 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형 퓨처랩 운영으로 미래 창의 인재 양성

### 전주시·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풍남중 학생 대상 프로젝트 운영

국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마일게이트가 전주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오픈지플래닛 전주센터를 운영 지원한 데 이어 청소년들이 코딩 및 AR(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 미니 컨벤션홀에서 풍남중학교(교장 김진덕)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2021년 전주형 퓨처랩'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현재 스마일게이트 판교 본사에서 5년째 운영되고 있는 퓨처랩은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영국 BBC 교육재단 등 글로벌 창의 학습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이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코딩, AR과 같은 최신 테크놀로지부터 예술, 과학, 인문 등 다양한 분야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흥미와 관심사를 발견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2년간 긴 협의를 통해 전주형 퓨처랩 추진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풍남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됐다. 김진덕 풍남중학교교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생들의 높은 관심이 이번 프로그램 시행의 중요한 바탕이 됐다.

3일간 풍남중 학생들은 △코딩&메이킹 △테크&스토리텔링 △과학(빛&아트)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청소년의 최신 관심사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주에 적합한 퓨처랩의 완성도를 높인 뒤 다양한 학교로 더욱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전주 퓨처랩 전용 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창의·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코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퓨처랩 운영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IT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운영 중인 오픈지플래닛 전주센터와 연계해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는 주춧돌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그간 스마일게이트와 함께 지역의 혁신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해왔"면서 "전주형 퓨처랩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미래 창의 인재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